

사람마다 책 한권씩 쓰자

장회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나는 여기서 '사람마다 책 한권씩 쓰자'고 제안한다. 사람마다 책 한권씩 쓰자고? 평생 책에 묻혀 사는 대학교수도 번듯한 책 한권을 펴내기가 힘든 노릇인데 이게 도무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교수에서 환경미화원까지, 시장의 상인에서 탄광의 광부까지, 우리 모두 책 한권씩 쓰자는 것이다. 글자를 몰라 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 글자를 배워서라도.

기묘하게도 책 읽기 권장은 많이 들어왔으나 책 쓰기 권장을 들어본 일은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권해 보라. 아마도 껌뻑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유독 책에 대해서만은 쓰라고는 하지 않고 읽으라고만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책을 써서 다 출간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가운데에는 출간할 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로 나타날 일이지, 처음부터 기죽어 포기할 일은 아니다.

사실 책을 쓰는 것은 출간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을 쓰는 일 자체가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말은 좁은 공간 안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문화' 즉 '입으로 지껄이기만 하는 생활'은 좀처럼 좁은 일상사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무슨 주제가 되었든 일단 책을 한권 써서 후세에 남기려 한다면 생각의 차원이 사뭇 달라진다.

알게 모르게 미지의 독자층과 대화를 하게 되고 후세인들이 지닐 관심사도 깊이 헤아려 보게 된다. 책 속에 담아 길이 전할 내용을 찾으려 한다면, 우선 내 생애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책은 쓰려는 마음을 지니는 것에서부터 사람을 바꿔 놓는다.

어디 그뿐인가?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한 내용물을 듬뿍 담은 책을 한 권 만들었다면, 후손에게 이보다 값진 유산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나는 이 점이 아쉬워 연로하신 어머니께 고생을 끼쳐드린 일이 있다. 일찍 작고하신 선친으로부터 책의 초고라도 한권 물려받지 못한 것이 서운했던 나는 당돌하게도 그 짐을 칠순 노모께 떠넘겨 드렸다.

"어머니, 책 한 권 쓰세요"

"책?"

"아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글로 써서 남겨 달라는 거예요"

그 후 얼마간 어머니는 아마도 생전 처음 맞이한 '정신노동'에 적지 않은 시련을 겪으시는 듯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드디어 원고가 완성(어쩌면 포기?)되었다. "이만하면 되겠네요"라는 내 말에 춤을 출 듯 후련해 하시던 그 모습이야! 칠순 노모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드린 처사야 그 무엇으로도 변호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면에는 그래도 그 무엇을 성취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내 어찌 간취하지 못했겠는가? 게다가, 나는 하마터면 영영 놓쳐 버렸을 소중한 가보를 하나 얻게 되었다. ❖

표지 인터뷰	2	자연으로 한걸음씩 다가서는 건축의 꿈 〈우리시대 건축이야기〉 펴낸 김 원씨
초점	4	유통개선에 출판계 둘러싸고 힘 모은다
출판시론	6	불황, 베스트셀러목록이 달라졌다
출판화제	8	문화출판을 풍부하게 하는 다채로운 시전집
	9	우리를 낳은 땅에 대한 사랑노래
	10	민주전사들이 띄우는 희망의 전언
화제의 출간	11	탄생 200주년 맞아 출간된 '푸시킨' 전집·외
출판가	12	인터넷 도입으로 '예비 출판전사' 양성
탐방	13	북카페 갖춰 새롭게 재탄생한 '논장' 서적
신춘 에세이	14	자연이 예비한 '스며드는 힘' - 김열규
	15	봄날, 2천년의 앞에서 장자를 읽다 - 김진경
연재기획	16	전후 풍조 속에 붙어온 '자유' 바람 - 강철주 건국 50년, 책의 사회사 ③ 휴전 직후
주제가 있는 책읽기	18	우리 삶을 규정하는 '시간'의 수수께끼 - 이희진 '시간'을 주제로 한 몇 줄기의 책들
책갈피 산책	7	주명철 〈지옥에 간 작가들〉을 읽고 - 이광주
	19	전인초 외 〈민족혼으로 살다〉를 읽고 - 유세중
해외서점 탐방	20	훈훈함 살아 있는 독일 대학가 가판서점 - 박진희 '포스트 페미니즘'의 도화선이 된 책들 - 오애리
만화	21	책과 오락장 - 박시백
마케팅 캠프	22	가치제안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 한기호
출판광고 클리닉	23	판타지 문학, 다양한 홍보연계 가능성 - 마정미
책보	24	영감으로 만드는 아름답고 튼튼한 책 예술재본장정가 백순덕씨의 책만들기
서평	26	타타르키브츠 〈미학의 기본개념서〉 - 이성훈 김대환 외 편 〈한국재법개혁론〉 - 채만수
	27	미나미 히로시 〈일본인론〉 - 신복룡 마굴리스 〈생명이란 무엇인가〉 - 황상익
책대서평	28	스펜스 〈천안문〉 이스트만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 황희경
이 책 그 사람	30	〈서승의 옥중 19년〉 펴낸 서 승씨 〈꽃의 기억〉 펴낸 김인숙씨
	31	〈우리 토박이말 3000〉 펴낸 이근술씨 〈이명석의 유쾌한 일본만화 편력기〉 펴낸 이명석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 48 독서퍼즐